

지역 메아리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위원회

완주군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27일 완주군은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지리도 환경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주민대표, 공무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평가위원들은 학교 급식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강화, SNS를 활용한 홍보, 전문기관의 감량 컨설팅, 주민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완주군은 평가위원회에서 도출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청명 콘서트

다양한 문화적 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매월 마지막 주에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3월 공연이 29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타악 퍼포먼스 '청명 콘서트'로 공연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문화예술포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달 마지막 주에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무료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퍼포먼스 그룹으로 난타 주연배우들과 젊은 국악인들이 모여 전통과 퓨전을 접목한 창작공연을 통해 문화공연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타악 연주 퍼포먼스 그룹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연간 100회가 넘는 공연을 진행해 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 펼쳐

김제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기동대(동장 정우근 민간위원장 박경준)는 27일 신덕동 신기경로당에서 당신밧치봉사대(대표 최창의)와 함께 만 75세 이상 관내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정수사건 활용 및 증식제공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수사건 봉사활동에는 아모레옴즈(조현경), 박종순 미용실(박종순), 뽀빠이포토(이성수), 제일사회복지관(여은경), 교월사모 부녀회(회장 이영이) 등이 재능기부 하였으며 정수사건 활용이후 협의체 위원 및 기동대 회원들이 직접 정성스레 국수를 준비하여 마을 어르신들과 맛있는 점심을 함께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개 선정

완주군, 5000여만원 국비 확보... 구이생활문화센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완주군이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5000여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감동요소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주군은 구이생활문화센터와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한국생활음악협회 완주지부 3곳이 선정돼 각각의 지역민에게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구이생활문화센터는 올해 처음 선정된 단체로 '우리동네, 좋은 이웃 문화학교'란 프로그램으로 한 가지

장르에 머물지 않고 플라워아트, 토탈공예, 음식만들기, 우쿨렐레 등 다양한 매개를 통해 매주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귀농귀촌인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토착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유도해 지역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이는 귀농귀촌인구가 많은 호수마을, 들꽃마을과 인접한 상하마을과 덕천권역 등에서 진행된다.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2017년도 연계사업으로 '한내마을 호호 장날, 열린 공방에서 놀자'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민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열린공방)을 통해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모든 주민이 언제든지 교육

의 주체와 대상이 되면서 문화예술교육 생산자로서 삼례읍 한내마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생활음악협회 완주지부는 2016년도부터 진행했던 '황금동행 II, 금정의 힘과 말의 기적'이란 사업을 진행한다. 경로당에서 함께 생활하지만 남녀 어르신이 각각 나누어져 소통하지 못하고 분리돼 있었던 황금동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오인석 문화예술과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테마버스 운행

전주한옥마을과 연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완주군이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완주테마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27일 완주군은 지난 24일부터 조선왕조의 발자취를 테마로 한 '2018년 완주테마버스'운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완주테마버스는 궁궐 중심의 관광이 아닌 전북에서 만나는 조선왕조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테마여행으로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해 '조선 왕조의 시작과 끝, 왕의 기억'이라는 테마로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전주한옥마을 탑승을 시작으로 위봉사·위봉산성·위봉폭포, 대승한지마을, 소양 순두부음식거리, 삼례문화예술촌,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경기전(전주한옥마을)을 도착지로 한다. 특히 올해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주한옥마을, 전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에서 탑승 가능하며, 성인 기준 3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사)마을통(http://maul.tong.co.kr)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전북투어패스 카드 사용자 삼례문화예술촌,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경기전 등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특별할인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식사비 및 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063-290-393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특별교부세 20억4600만원 확보

농업인 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추천)가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4,6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건립 사업 12억원,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신축 사업 4억원, 봉남면 신응지구 배수실 정비사업 4억원, 보행자용 도로명 확충사업 2,600만원,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2천만원 등 총5건의 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되어 교부되었다.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는 김제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업인들에게 신기술 영농, 스마트팜 육성 등 교

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1억원을 들여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약200m정도 거리인 옥산동에 시행중에 있으며 옆에는 미생물배양실이 신축중에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자리 잡고 있어 방문하는 농업인들에게 근거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신축사업은 기존건물이 45년이 경과하여 노후가 이루어져 급년에 철거하고 도자기 전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신축하여 지역주민과 외부관광객에게 도자기 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봉남면 신응지구 배수시설 정비사업은 저지대에 위치한 신응지구에서 정비철마다 상류지역에서 일시

에 밀려오는 빗물 등으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배수펌프장과의 연계처리를 위하여 배수로관등을 설치하여 올해안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보행자용 도로명 확충사업은 매년 교부되는 교부세로 관내에 도로명판 확충에 쓰일 예정이며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2,000만원은 김제시가 2017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이월·비용을 최소화시켜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받았다. 한편 2017년도에 연말까지 총47억 6,400만원을 교부받아 역대 최대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김제시는 "올해 2018년은 1분기까지 20억4,600만원을 교부받아 올해역시 최대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농기센터, 귀농귀촌 기본교육 수료식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27일 교육생 100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귀농귀촌 기본교육 수료식을 실시했다. 김제시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교육은 당초 40명 계획보다 64명 더 많은 104명이 신청하여 개근하신 분이 30명, 88명이 70% 이상 수업을 이수하는 등 김제시에 대한 귀농귀촌인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

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성공적인 귀농귀촌에 기반이 되는 귀농귀촌인문학, 기초농기교육, 선도농가 현장교육 등의 내용으로 100시간 1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김제시는 앞으로 기본교육을 수료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소형 농기계 및 시설 하우스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등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축사를 통해 "2017년 494가구 792명이 김제에 오셨고 지금까지 2,870가구 5,151명의 귀농귀촌 가족들이 김제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 귀농인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노하우를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화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구면, 찾아가는 복지상담 '호응'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 방문을 실시 1:1상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고, 기초수급자 170세대 254명에 찾아가는 복지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4월까지 1:1 방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1:1 방문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강·주거·생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해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119사업"등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집수리사업 신청, 이웃돕기 성금 지원 등 고민해결을 도와 다가서는 행정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를 높여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관주 면장은 "행정의 작고 세밀한 관심에 어려운 분들은 큰 고마움을 느끼는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방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수시로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